



김상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D.N.A 기반 첨단산업 육성으로 디지털 R&D 혁신 선도할 것

2020년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 당시 정부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약 32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D.N.A를 활용하는 성장기반 구축과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해당 내용에 따라 충북도는 지역주력 산업 고도화 전략을 필두로 지역 맞춤형 사업에 집중해왔다. 이 중심에서 디지털 기반의 R&D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스마트 응급의료서비스 등의 혁신 모델을 선보이며 정책에 발맞춘 사업 수행과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며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 김윤혜 기자 kyh@monthypeople.com 취재 유지연 기자 yjy@monthypeople.com

사진 및 자료제공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경영본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수장으로서 기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과학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R&D혁신을 선도하는 지역혁신 거점기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과 R&D 산업을 기반으로 양질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 지역-기업-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개원 이후 지역의 지식서비스산업을 시작으로 ICT융합산업을 거쳐 현재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핵심 기능 위주의 기관 운영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살린 사업 수행을 이어나가고, 지역 대학-연구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산업과 정책 동향에 발 빠르게 움직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속적

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사업 지원으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핵심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지역혁신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D.N.A 중심의 ICT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제4차 산업 선도 인재 양성입니다. 중장기적인 지역과학기술 진흥 전략 수립과 신규 사업의 발굴·기획, 지역산업정책, 지역특화산업을 기획하고 지역산업의 거점이 될 컨트론타워와 충북 균형발전 과학기술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의 고도화로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융복합 콘텐츠 기반의 사업화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며, 콘텐츠 인재양성 및 지역산업 연계 혁신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주요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는 등 전 산업군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D.N.A의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경우 3대 주력산업(기후환경, 관광 스포츠, 첨단형 뿌리기술)과 6대 신성장산업(바이오, ICT 융합, 신교통 항공, 유기능 식품, 태양광 신에너지, 화장품 뷰티)을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전략을 앞세워 ICT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은 지난해 충북형 D.N.A 혁신전략을 통해 충북이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습

니다. 디지털 기반의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자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사업 수행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뉴딜 사업이 ‘투입-가공-활용(서비스)’의 밸류 체인 중 ‘투입-가공’ 단계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고려하여 앞으로 충북과 과기원은 서비스 개발과 지원에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사업 구조재편에 취약한 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선제적·체계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팩토리 도입 및 활성화

- 충북 스마트팩토리 거버넌스 구축
- 스마트팩토리 도입 지원
- 스마트팩토리 컨설팅
- 스마트마이스터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 충북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솔루션 개발/보급
- 스마트팩토리 R&D 사업 확대
- K-스마트등대공장 추진
- 충북지역 스마트팩토리 협력체계 구축

충북 D.N.A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충북 4차 산업혁명 협의체 구성
- 충북 IT/SW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 충북 D.N.A 창업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 AI, 빅데이터 기업 유치
- AI, 빅데이터 기업 애로기술 해결
- 기업기술 해외진출 추진, 민관 협의체 운영
- 스마트 기업 지원 앵커시설-충북 D.N.A 전시관 구축

충북 6대신성장산업 고도화

- IoT 기반 웰니스 정보 플랫폼 구축·실증
- 청주에어로폴리스 데이터플랫폼 구축
- 충북 스마트산업단지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구축
-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공정혁신 시물레이션센터 구축
- 충북형 이노베이션 파크 내 AI 솔루션 실증장비 구축
- 바이오첨단농업 복합단지 데이터센터 구축

충북 D.N.A 인재양성

- 충북 D.N.A 고급인력 양성
- 지역 맞춤형 고급 SW 인재양성
- 충북 스마트팩토리 인재 양성
- 중소기업 재직자 스마트팩토리 역량 강화
- 충북 소재 대학 6대 신성장 특성화 교육 강화
- 충북형 AI 공유대학 운영
- 충북 SW 경진대회 개최
- 빅데이터 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

충북형 D.N.A 혁신전략

충북형 스마트 SAFETY. O2O. CONVENIENT SMART LIFE SERVICE

충북 혁신거점밸리(혁신도시, 오창, 오송) 스마트 솔루션, **도시문제 해결의 답**이 되다.



2022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전담기관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스마트 응급의료 연계 서비스 등 현재 추진 중이신 내용은 무엇인지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형 스마트 SAFETY.O2O.CONVENIENT”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SAFETY.O2O.CONVENIENT는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뜻하며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대학 등 민간이 함께 창의적인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국비 15억원으로 예비사업을 실증했고 그 성과를 평가받은 결과 2년간 221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간투자 21억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주관의 3개 시·군(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을 연계해 기획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의료, 생활, 교통 등 분야별 도시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의 대상지는 정부 정책으로 조성된 충북혁신도시, 오송, 오창 지역으로 결정하고 각종 설문조사와 연관어 빅데

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의료, 교통, 생활분야에 스마트솔루션을 실증하였습니다.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료분야는 ‘구급 출동과 함께 병원 진료 시작’이라는 목표로 병원-소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스템 사용 이전에 비해 재이송률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이동시간을 10분 이상 단축시킴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본 사업에서 스마트응급의료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환자 중증도 분류 이트리아지도 총 2,000개로 확대 보급하고, 스마트 응급의료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전국 확산과 해외수출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신산업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원장님의 의견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 혁신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은 첨단산업 유치, 혁신인재 양성,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모아지는데 각 지자체는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고부가 미래 첨단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지역주력산업인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을 통한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롭게 바뀐 정부 정책에 맞춰 미래차, 인공지능(AI), 6G, 로봇, 반도체 산업 등에도 혁신역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초광역)를 통해 지방의 규모를 키워 지역 활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일조하여 충청권의 목표인 전 지역 50분 생활권, 국내의 기업유치 2,000개, 신규일자리 24만개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혁신기관도 분야별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올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산·소득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역산업 기반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

- 5월호 지면에 계속.